

“문화재는 원위치에 있어야죠”

가사이 의원 방한... “역사 과오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운명”

“조선왕실의례 반환을 비롯한 문화재 환수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조선왕실의례’ 등 귀중한 도서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답화를 발표하는데 이어 가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 의원(공산당·사진)이 “후속 문화재 반환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8월 18일 조선왕실의례 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의정, 이하 환수위)가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왕실의례 환수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재의 환수는 현재 일본 공내청과 외무성, 한국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이 함께 협의하는 단계”라며 한국 내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06년부터 조선왕실의례 환수에 관심을 둔 가사이 의원은 지난 4월 공내청에 조선왕실의례가 총 81종 167책(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일본 내에서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의례 환수를 위해 한국을 4번째 찾은 가사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17일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

을 면담하고 명성황후 묘소를 참배했다.

가사이 의원은 이번 방한에 대해 “오늘 공승 경보가 울리는 훈련을 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65주년 광복절 직후 방한한 점과 함께 조선왕실의례 반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이어서 뜻깊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간 총리의 답화문 발표 이후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논란이 한창이다.

가사이 의원은 “의례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의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의례를 직접 보여주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공내청에서 직접 의례를 보며 이 문화재는 한국에 있어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UNESCO에서도 문화재는 원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케타 신고 일본 공내청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조사 중이지만 의례의 상당수 문화재가 조선총독부를 거쳐 한반도에서 유래



한 것은 확실하다”며 “한국의 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한국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사이 의원은 “의례 외에 돌아가야 할 문화재가 많은데 일부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모이면 자칫 다른 문화재의 환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선왕실의례 81종 167책 중 1종 4책(진찬의례)은 일본이 직접 구입

한 것으로 반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가사이 의원은 “구입한 의례에 대한 사안은 일본의 국유재산 처분 관련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간 조약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사이 의원은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세력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1991년 영친왕비인 이방자 여사 복식을 반환한 자민당 집권 당

시의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조선왕실의례를 비롯한 약탈문화재 환수는 환수위 등 민간 단체의 노력에 비해 한국정부와 정치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사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방한 당시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게 의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답화에서 ‘의례 등’이란 표현은 문화재 환수에 대한 한일 정부·민간의 여러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사이 의원은 그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례로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라며 “9월 말 임시국회에 본격 논의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어머니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가사이 의원은 끝으로 “의례가 일본으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진 1922년 일본 공산당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반대를 기치로 창당했다”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의정 환수위 공동대표, 사무처장 해문 스님, 월정사 법상 스님 등 환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의정 공동대표는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환수위 등 민간단체가 일본 측에 설득 작업을 벌여 얻은 성과”라며 “한일 간에 이해와 우호를 토대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100자 뉴스

군위 인각사 일연 선사 추모다례제 봉행



군위 인각사주지 도관은 8월 17일 일연 스님 열반 제721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장욱 군위군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삼국유사로 위대한 민족정신을 일깨운 일연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추모했다. 인각사는 일연 스님을 기리는 다례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삼국유사 문화의 밤과 학술대회 등 제10회 삼국유사 문화제를 펼칠 예정이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균종교구 9월 17일까지 군승 요원 모집

조계종 균종교구(교구장 자광)는 군포교 현장에서 불법 홍보에 앞장 설 군승 요원을 모집한다. 국가가 인정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사미계 이상 수지, 입관 시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30일~9월 17일로 제출서류는 지원서, 추천서 등이다. 서류심사·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예비 군승요원은 동해계 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뒤 군승으로 입관·파송된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조계종 문화부·불출협 도서관 설치 사찰 공모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효탄)와 불교출판협회(회장 지홍)는 사찰도서관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참여사찰을 9월 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서보급과 승려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백전불교문화재단이 사찰 조영하여 후원하며 대상사찰로 선정되면 ‘부처님글사랑’ 현판과 불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02)2011-1780 이은정 기자

파라미타 거제지회 cafe 파라미타 개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지회장 서명희)는 8월 20일 거제시 고현동 468 한려하이츠빌라 101호에 ‘cafe 파라미타’를 개점했다. ‘cafe 파라미타’는 10대여단의 문화실터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등 인한 아동보호 문제해결 및 문화공간 개발, 자율적 정서함양서비스 등을 위한 공간이다. 카페에서는 5월 열렸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 토론회에 이어 매월 독서토론회를 진행한다. 운영시간 오후 2~7시. (055) 632-0366 이상연 기자

김천 다문화센터 직지사서 무료 건강검진

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는 8월 22일 김천 직지사서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83가정 276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무료건강검진은 베트남 여성의 국제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상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스님 위한 상설 연수교육 개설

교학·사찰경영 등 30여 강좌 인기

조계종이 스님들의 불교와 사회의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불교교학 △전법향상 △사찰경영 △불교문화 △자원봉사활동 등 30여 연수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상설 운영을 시작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첫 상설 연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850여 스님이 각 분야별 강좌에 수강신청 하는 등 호응이 크다”고 8월 18일 밝혔다.

분야별 수강 접수는 6월부터 시작했다. 매 강좌 개강 10일 전에 마감되는 강좌에서 ‘스피치능력향상과정’ ‘신도상담지도과정’ ‘사찰경영지도과정’ ‘불교와 심리치

료’ ‘선요특강’ 등은 일찌감치 신청이 마감되거나, 마감을 임박할 정도로 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 스님은 “이번에 개설 운영하는 상설 연수교육은 개방된 일과 다양한 주제로 연수교육의 틀을 새롭게 전환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연수교육 강좌 개설을 2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 연수교육> 팸플릿은 12월경 전국 사찰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사업이 백제사 망친다

마곡사 등 왕흥사지서 천도재 봉행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와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은 8월 20일 정부의 4대강 사업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부여 왕흥사지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고, 현장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총무회화 스님이 대신한 격려사에서 “백제의 국찰인 왕흥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신비스러움을 밝혀주는 열쇠”라며 “백제 왕이 배를 타고 건넌 나루터와 왕흥사를 잇는 길을 4대강(금강)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파낸 준설토로 인해 백제 유적이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왕흥사지는 백제 목탑 중 최초로 사라지가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유적으로 백제 유적의 보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진행 중인 4대강(금강) 사업은 왕흥사지 경계로부터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등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왕흥사지 주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왕흥사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 8월 20일 왕흥사지 현장조사에서 왕흥사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만 기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왕흥사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현장설명회를 통해 “왕흥사지는 유물이 많이 발견돼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더욱이 왕흥사지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초조대장경 천년기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팔공산 역사탐방길 걷기대회

2010. 8.28(토) 오전 9시
씨네80자동차극장 ← 부인사(왕복 약4km)
(참가비 무료)

문의전화 : 대구불교방송 (053)427-5114

주최 대구광역시·동화사 주관 BBS 대구불교방송
후원 영도벨벳, 불교방송 후원회·자비의 전화, 동국대학교

www.dgbbbs.co.kr

씨네80 자동차극장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팔공산온천호텔

수태굴

부인사

동화사

동화사 인공 석포 삼거리

승시(僧市) 스님들이 불교교회를 위해 열었다고 전해지는 정터

팔공산

행사기간 2010. 10. 1(금)~10. 3(일)
장 소 팔공산동화사 옆 야외자동차 극장